

# 한국에 신전은 언제 세워질 것인가?

한 인 상 지역대표



**드**디어 우리의 이웃 나라인 일본의 수도 동경에 “주님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1980년 10월 27일은 그런 뜻에서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동경 신전 안에서의 헌납 의식과 키치조지에 있는 동경 스테이크 센터에서 반복된 헌납 모임은 비단 그곳에 참석했던 일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참석할 수 있었던 한국의 신전 지도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고 일생에 한두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 헌납의 상황을 말이나 글로 설명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마디로 간단히 정리한다면 ‘일본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하고 하나로 힘을 모아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보상으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부부로서 인봉되며 부모와 자식이 영원한 가족으로 맺어질 수 있는 신전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누우침과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면서도 그 신전을 가질 수 있는 일본 성도들을 참 부러워했으며 혼자서만 신전 안에 있을 수 밖에 없는 형편으로 해서 더 많이 울었습니다.

1980년 10월 30일, 동경 신전의 첫번 의식에 참여한 한국의 신전 역원들은 세분의 형제들이 처음으로 엔다우먼트를 받는 역사적인 모습을 함께 지켜 보았고 의식이 끝난 다음에는 모두 커터 아이들처럼 큰 소리로 울면서 오래도록 열지 못했던 가슴을 열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 때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친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의 의미와 자기를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배웠고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거듭 가르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너희가 하나가 되라. 하나가 아니면 나의 것이 아니라.” (교성 38:27 참조)고 하셨으며, 우리가 교만과 비판과 불평과 거부와 자기 방종과 증오와 분노와 참지 못함과 자기 방어와 자기 위주의 생각을 멀리 떨쳐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신전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는 위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며,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 인류의 구세주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보잘것 없는 여관의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가 얼마나 경손해야 하는가를 가르치셨고 전생애를 통해서 인내와 절제와 무한한 사랑으로 인류를 대하시며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국 대회가 우리에게 거들나는 계기가 된 것을 확신하며 온갖 정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께 마음속의 감사를 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전이 보입니다. 푸른 하늘에 높이 치솟은 신전의 탑이 보입니다. 한국 성도들이 온 가족의 손을 잡고 천국 시민으로의 준비를 갖추어 인봉될 수 있는 한국 신전의 모습이 보입니다. 더욱 하나가 되어 열심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더욱 수고하여 일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를 큰 사랑으로 보살피 주신 스펠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과 총관리 역원 여러분의 평안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성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과 가정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구합니다. 아멘.

## 에덴 청소년 학교 입학식 거행



제 1회 졸업생들과 지도 교사들

입학식에서 선사하는 학생들



제 2회  
졸업생들과  
지도 교사들

### 부평 지부 김연자 자매 실업 부기 경진 대회 1위 입상

지난 9월 26일 경기도 교육 위원회 주관으로 도내 72개교 144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 17회 실업 부기 경진 대회에서 서울 서 스테이크 부평 지부 소속의 김연자 자매가 영예의 1위에 입상하였다. 김 자매는 현재인 천 여자 상업 고등학교 3학년년에 재학 중이며 교회에서도 활동적인 회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

지난 9월 1일 서울 동 스테이크 제 1와드에서 에덴 청소년 학교 제 3기 입학식을 가졌다. 이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우기를 갈망하는 직업 청소년 188명이 입학하였다. 이 학교는 1978년 2월에 처음으로 문을 연 이래로 세번째 입학학생들을 맞아들이게 되었다. 이곳에서 힘써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제, 자매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 동 스테이크 제 1와드 이홍래 감독을 비롯하여 이영수 형제, 신재구 형제 그리고 27명의 물문 형제, 자매들이 돕고 있다. 지금까지 76명이 입학하여 35명이 졸업하였으며, 이들 중에서 중학 입학 자격 검정 고시에 11명 그리고 고입 자격 검정 고시에 18명이 합격하였다. 또한 13명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에덴 청소년 학교는 입학금과 수업료 일체가 무료이며, 독신 성인 형제 자매들의 무료 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수업 기간은 18개월이다. \*

# '80년 한국 대회



대회 광경



지난 10월 25-26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를 서울 선교부(청운동 7번지)에서 성대히 거행하였다.

10월 25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서울 동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여성을 위한 모임"과 서울 스테이크 제4와드에서 "신권 대회"를 가졌다. 일요일 제1총회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오전 11시에 마쳤고, 제2총회는 오후 1시에 시작하여 3시에 마쳤다. 이번 '80년 한국 대회는 '75년 한국 대회를 개최한 이래 5년 만에 갖게 된 뜻깊은 모임이었으며, 특히 연로한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을 다시 모시고 가진 역사적인 대회였다. 대만에서 지역 대회를 마치고 피로한 몸인데

도 2일간의 대회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킴블 대관장은 특별한 사랑과 교훈을 한국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에도 신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안겨 주었다. 연인원 약 3만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이번 대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25일의 날씨는 매우 쌀쌀하고 진눈개비와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26일에는 날씨가 맑았다. 차가운 날씨에도 성도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으며 단상에서 성도들을 지켜 보는 대관장단, 총관리 역원, 스테이크 부단장 그리고 선교부장 등 신권 지도자들은 추위를 이기며 힘주어 말씀을 전했다.



스페인서 머문투 김봉 대관장



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성도들은 하루밤을 서울 각처에서 묵었으며 아침 일찌기 대회장에 모여서 말일의 예언자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다. 단상에는 휘몰아치는 영하의 찬바람을 이기기 위해 담요를 몸에 감고 앉아 있는 대관장과 총관리 직원들의 모습과 가족끼리 한데 묶여 추위를 이기며 똑바로 단상을 쳐다보는 모습에서 흡사 서부로 이주하던 신앙의 선조들의 인고를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합창단원들은 외투도 입지 않고 열심히 합창을 하였으며, 그 소리는 듣는 성도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었다. 대회가 끝난 후 합창 단원 중의 한 사람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고 간증하였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글리 장로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한 인상 지역 대표와 그 밖의 많은 역원과 회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빼놓지 않았다.

시내 각 일간 신문과 주간 종교, 코리아 헤럴드, MBC-TV, KBS 등 매스컴에서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에 관하여 보도하였으며, 많은 사람에게도 물론 교회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한국 대회는 한국 성도들에게 특별한 축복이었으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들 주한 외국인 민속 예술 경연 대회에서 가요 부문 최우수상 수상



인상적 분위기를 갖는 선교사들

지난 9월 18일 세종 문화 회관에서 코리아 헤럴드 주최 제13회 외국인 민속 예술 경연 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 서 선교부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4명의 선교사가 가요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노래 제목은 "장미" 이었고, 청중들의 대단한 갈채를 받았다. 그들은 선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틈틈이 연습하였다. 코리아 헤럴드 주최 민속 예술 경연 대회는 매년 한 번씩 개최되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이 참여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



Korea Herald Photo

Shown here are five outstanding winners of the 13th Annual Korean Folk Arts Contest for Foreigners. They are Mrs. Beryl B. S. Yoou of the United States (left, front row) who won the highest 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er's Award in the folk music and dance division for her performance of a drum dance and the members of an American quartet who won the equally highest Award in the popular music division for their rendition of a popular song "Rose."

전열좌: 버리비 에스 유 부인(민속 무용 부문 최우수 입상자)  
전열우: 유 덕만 장로 2열좌: 서 정일 장로  
2열중: 이 교수 장로 2열우: 마 소은 장로

## 서울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



연성회 노래하는 회원들

서울 스테이크는 지난 9월 13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제4와드에서 한국 대회 준비의 일환으로 합창 경연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경연 대회에서 영동 지부가 최우수상을 받았고 잠실와드가 우수상을 받았다. 찬송가, 133장을 지정곡으로 하였으며 자유곡은 성곡 중에서 하나를 택하도록 되어 있었다. 심사 위원으로는 서울 스테이크 부장단과 서울 북 스테이크 양경신 자매가 수고하였다. \*